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JULY 2016 No.5
www.gwangjufc.com

PREVIEW

7월, 중위권 진입 교두보 만든다

GWANGJU FC STAR

여름,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캡틴

RIO 2016

이찬동+박동진, 올림픽 메달 사냥하러 GO!

7월 3일(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

7월 9일(토)

19:00



vs 인천 유나이티드

7월 20일(수)

19:00



vs 전남 드래곤즈



문화체육관광부



※ 본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주FC 6월 RECORDS

광주FC TOP SCORERS



선수명	득점
송승민	3
김민혁	2
김정현 여름	1
이민기 조주영	1
주현우 홍준호	1

2016년 6월 K LEAGUE CLASSIC



승 ■ 1
무 ■ 3
패 ■ 2

9득점
9실점

06.04		1-1 무
06.11		2-3 패
06.15		2-3 패

06.19		1-1 무
06.26		1-1 무
06.29		2-0 승



광주FC TOP ASSISTERS



선수명	도움
이으뜸	3
조주영	2
송승민 이종민	1
조성준 주현우	1



2016년 광주FC 시즌 기록

	득점	도움	실점	슈팅	코너킥	파울	경고	퇴장
광주FC	1.24	0.82	1.29	9.12	4.35	15.52	2.76	0회
클래식 평균	1.39	0.88	1.39	11.83	4.66	13.32	2.05	5회



반환점의 7월 중위권 진입 교두보 만든다

K리그 클래식이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팀 당 38경기를 소화하는 K리그 클래식은 7월 일정을 소화하면 팀 별로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게 된다. 이는 7월 일정을 마치면 올 시즌 순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광주FC는 6월까지 승점 23점을 얻으며 8위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 원하는 승점 확보를 하면서 1차 목표인 잔류를 향해 좋은 걸음을 걸었다. 그러나 광주의 최종 목표는 잔류가 아니다. 스피릿 라운드에서 상위 스피릿에 올라 그룹A에서 순위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승점을 얻고 순위도 올려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광주의 가시권에 있는 상위팀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광주보다 위에 있는 상주 상무, 성남FC, 포항 스틸러스와는 3점 이내의 승점 차를 보이고 있다. 크게 승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2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7월의 첫 번째 일정이 포항전이다. 포항을 잡는다면 바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울산 현대, 상주 등 상위팀과의 일정이 이어진다. 이 경기들은 승점 6점짜리의 가치가 있다. 승리를 하면 승점 차를 좁히거나 순위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다.

물론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도 놓칠 수 없다. 이 팀들과도 승점 확보가 필요하다. 최소한 현재의 승점 차는 유지해야 한다. 만약 상대의 추격을 허용하면 8월 이후 일정이 쉽지 않아진다.

그렇기에 광주에 있어 7월은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회가 온 만큼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집중력을 갖고, 상대를 철저히 분석해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6 K리그 클래식 중간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전북	35	9	8	0	29	19	10
2	서울	30	9	3	5	34	24	10
3	제주	27	8	3	6	32	26	6
4	울산	27	8	3	6	17	20	-3
5	성남	26	7	5	5	28	22	6
6	포항	24	6	6	5	23	18	5
7	상주	23	7	2	8	32	29	3
8	광주	23	6	5	6	21	22	-1
9	수원	18	3	9	5	23	28	-5
10	전남	15	3	6	8	18	24	-6
11	인천	15	3	6	8	14	22	-8
12	수원FC	12	2	6	9	10	27	-17

7월

광주FC

경기 일정

7월 3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	홈
7월 9일	19:00	vs 인천 유나이티드	홈
7월 16일	19:00	vs 울산 현대	원정
7월 20일	19:00	vs 전남 드래곤즈	홈
7월 23일	19:00	vs 상주 상무	원정
7월 30일	19:00	vs 전북 현대	원정

광주FC 시즌 전력 중간 분석!

K리그 클래식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광주FC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중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는 지금까지(1R~16R) 어떤 전력을 보여왔을까? INSTAT의 분석 자료를 통해 광주의 전력을 파악해본다.

*경기당 평균 수치

패스

417회 (74%)

클래식 12위

프리킥 공격

6회

클래식 1위

공중볼 경합

63회 (47%)

클래식 4위

핵심 패스

10회

클래식 8위

역습

16회

클래식 8위

테클

37 (57%)

클래식 5위

점유율

49%

클래식 8위

경합

194회 (48%)

클래식 2위

드리블

32 (53%)

클래식 3위

코너킥

4회

클래식 8위

이찬동 + 박동진



이 찬 동

미드필더
1993.01.10
183cm/83kg
K리그 통산 78경기 1득점 1도움
올림픽대표팀 11경기 1득점

올림픽 메달 사냥하러 리우 GO!

박 동 진

수비수
1994.12.10
182cm/72kg
K리그 통산 9경기
올림픽대표팀 15경기

광주FC가 2명의 올림픽대표팀 선수를 배출했다. 올 시즌 광주의 허리와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이찬동과 박동진이다.

이찬동과 박동진은 지난 6월 27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대표팀 최종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두 선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18명의 최종명단에 포함됐다. 사실 이찬동, 박동진의 올림픽대표팀 발탁 가능성은 컸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 출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이찬동은 광주의 거의 모든 경기를 뛰고 있다. 그가 결장하는 경기는 경고누적으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뿐이다. 올 시즌 프로데뷔를 한 박동진도 지난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까지 9경기를 뛰며 광주 수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K리그 클래식에서 빼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두 선수를 뽑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두 선수는 올림픽대표팀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와 상대 압박 등 장점을 발휘했다. 올림픽대표팀의 주력 자원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선수의 꿈이다. 이찬동과 박동진은 광주에서 보여준 좋은 활약으로 올림픽 무대에 섰다. 이제는 올림픽에서도 좋은 경기로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림픽 출전 전까지 철저한 몸 관리와 좋은 경기력 유지가 필수다.



여름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광주의 'NEW' 캡틴

이 남자 계절을 타는 걸까? 더위가 점차 기승을 부리는 6월이 시작되자 여름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주장으로 임명되더니 소위 말하는 인생골까지 터트렸다. 전북 현대와의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에서는 1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쌓았다. 광주의 원클럽맨으로 프로 데뷔 5년 만에 이룬 값진 기록이다.

그러나 여름은 개인 기록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여름은 늘 팀을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그렇지만 광주와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함께한 여름의 책임감은 또 다르다. 광주가 6월 일정에서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한 터라 여름의 마음도 편치 않다.

"경기 시작 전부터 주변에서 100경기, 100경기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이

다"라면서 "그러나 팀이 승리를 못해서 기뻐하는 것 보다는 팀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비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다음 경기는 이기려고 준비하겠지만 정신 상태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이 100경기를 치른 날, 광주는 안방에서 선두 전북과 1-1로 아쉽게 비겼다.

하지만 여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언제 프로에서 1경기를 뛰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다. 1경기라도 뛰어보고 싶었다. 근데 어느덧 100경기를 뛰게 됐다.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닌데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이런 뜻 깊은 경기를 해서 기쁘다.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항상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을 고마워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100번째 경기였으나 마냥 처져있는 것도 아니었다. 특유의 재치로 금세 주변을 환기시켰다. 6월 19일 성남FC전에서 터트린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이 인생골이 아니냐는 질문에 "음... 그 정도가 나의 인생골을 아니다"고 웃어 보인 뒤 "농담이고 운이 좋아서 잘 들어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 경기도 비겨서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벌려 나가려고 한다. 우리도 빨리 6위 안에 들어 걸려면 좀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도 화제가 됐다. 코너플래그 쪽으로 다가가 강아지가 오줌을 싸는 포즈를 취해 경기장을 찾은 홈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세리머니의 일가견(?)이 있는 여름은 지난해 6월에도 백담블링으로 이달의 세리머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나같이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종의 팬서비스였다.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다. 솔직히 세리머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팬 서비스를 하고 싶었다. 홈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 구역을 우리가 지킨다는 뜻에서 강아지가 영역표시를 하는 세리머니를 하게 됐다. 뜻이 팬들에게 나쁘게 말고 좋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동안 부주장을 수행한 그는 이종민을 대신해 주장으로 올라섰다. 부상 등으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이종민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남기일 감독의 선택이다. "종민 형이 다 놓아버리는 것은 아니다.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 배우면서 잘해야 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위에 형들도 봐야 하고 동생들도 챙겨야 한다. 그러다 보니 종민 형 자리가 힘들고 무거웠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할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축구를 편하게 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팀을 이끌어가겠다"며 말을 마쳤다.

지난 6월 15일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광주FC가 0-2로 FC서울에 끌려가던 상황에 벼락같은 오른발 슈팅이 굳게 닫혀있던 서울의 골문을 갈랐다. 슈팅의 주인공은 팀 내 최대 득점자 정조국도, 전담 키커 이종민도, 특급조커 조주영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이날 프로 데뷔전을 치른 왼쪽 풀백 이민기였다. 더군다나 경기가 열린 장소는 서울의 홈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주는 2-3으로 패했으나 이민기의 득점은 적지에서 우승후보 서울 상대로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민기는 당시 느낌을 생생하게 갖고 있었다. "처음에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은 멍했다. 골망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득점이구나 생각했다"면서 "가족이랑 여자친구가 경기장에 와 있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었다. 집이 서울이라 어릴 적부터 FC서울 경기 많이 보고 회원카드도 있었다. 관중석에서 아버지와 보다가 직접 뛰고 데뷔골을 넣으니깐 너무 좋았다.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다. 일부러 내색은 안하셨지만 누나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깐 아빠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하셨더라"며 흐뭇해했다.

이민기는 시즌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신인이다. 동계훈련에서 남기일 감독의 눈도장을 받으면서 데뷔 시즌 전망을 밝혔다.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려왔을 프로 데뷔. 그러나 예기치 못한 부상이 이민기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이민기는 개막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밟았다.

"동계훈련 때 감독님한테 기대도 받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대학교 때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던 부위다. 프로 와서 바로 다치니깐 정말 많이 속상했다"며 "시즌 시작하면서 같이 들어온 신인 선수들이 데뷔하고 잘하는 것 보면서 초조함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친구들이 잘해서 좋긴 한데 혼자 경기에 뛰지 못하니 마음이 좋을 순 없었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이민기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윤보상, 조주영 등 입단 동기들의 활약을 옆에서 지켜보며 복귀 의지를 불태웠다. 신인 선수에게는 가혹하기 그지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민기는 이 고됨을 견디며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갔다.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신인이지만 나도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겼다. 자극이 됐고, 하루 빨리 복귀해서 경기를 뛰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며 강하게 마음을 잡은 것이 달라질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으나 결코 자만하는 법이 없었다. 데뷔전을 인상 깊게 봤다는 말에도 이민기는 손사래를 쳤다. 오히려 "진짜 많이 노력해야 한다.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느꼈다. K리그 무대는 확실히 어려웠고 벽이 높은 것 같다. 템포도 빠르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정말 잘한다"며 "항상 경기 들어가기 전에 팀을 위해 경기를 뛰자는 생각을 한다. 개인적인 활약보다는 팀이 요구하는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이민기의 시즌은 동기들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됐다. 늦어진 출발만큼 이민기는 더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은 경기 중 반 이상에 나가는 것이 앞으로 목표다"고 말하는 그의 성장세를 지켜보는 것도 광주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민기

화려하게 데뷔한 광주의 미래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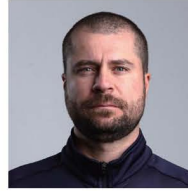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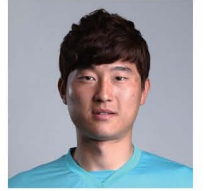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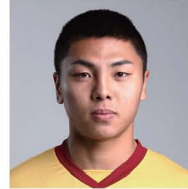
4 DF 웰링톤

1990.02.21 194cm/80kg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8 DF 이은뜸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10 FW 파비오

1986.10.04 171cm/66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운

1994.04.03 175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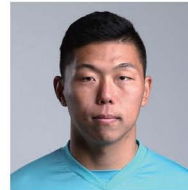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22 MF 조용태

1986.03.31 180cm/69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 / 68kg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28 MF 김익신

1992.11.26 181cm/70kg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 / 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wangjufc



2016시즌 홈경기 일정

NEXT

7월 3일(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

7월 9일(토)
19:00



vs 인천 유나이티드

7월 20일(수)
19:00



vs 전남 드래곤즈

8월 10일(수)
19:00



vs 인천 유나이티드

8월 21일(일)
19:00



vs 수원FC